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교회와 담임목사는 KPCA 해외한인장로회
캐나다 서노회 소속(밴쿠버삼성교회, 밴쿠버지
구촌교회와 같은) 교단입니다.
우광현 담임목사는 한국에서 대한예수교장로
회(통합) 교단이었으며, 서울북노회에서 안수
받았습니다.

KPCA 해외한인장로회

KPCA 는 1976년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
고의 소수 교회들이 모여 설립된 이래 캐나다,
멕시코, 중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호
주, 일본 그리고 유럽을 포함하는 해외 한인교단
중 가장 큰 규모의 교단입니다. KPCA는 현재
미국교회협의회(NCCCUUSA)에 속한 367개교
단 중 유일한 동양인 교단이며, 미국 장로교회
(PCUSA)와 한국 예장통합 교단과 함께 목회자
이동과 교류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 에벤에셀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 Sabah Theological Seminary 장상택 선교사

♥ 에벤에셀교회와 기도로 협력하는 교회
- 빅토리아한인교회

모임안내

- ☆ 주일예배 오후 1시 50분
- ☆ 금요모임 매주 저녁 7시
1562 Taralawn Crt. Burnaby

Online Service

📞 778-888-9543

🌐 vanebenezer.com

📱 카톡 오픈채팅 -
"밴쿠버에벤에셀교회 문의"



교회소식

- ♥ 소그룹모임안내: 매일 첫째주는 성찬성례와 식사교제가 있습니다.
- ♥ 이번 주 성경동독 2월 22일 오후 22장 - 2월 28일 오후 29장

1. 다음 주는 성찬성례가 있습니다. 성찬위원- 분병:유필두집사 분찬:박진성집사
2. <사순절> 2월18일-4월4일
3. 천용호 청년- 미국 뉴욕 변호사시험이 24,25일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4. 이 달의 암송구절을 실천해 주세요.
5. 본 교회가 선교 후원하는 말레이시아 사바신학교 장상택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독교 대표 영성작가 시리즈

266. '믿음이라는 열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_히 11:6

믿음을 떠나서는 예복이나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위와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영적 권위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인 하나님"(고전1:17)을 의미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수반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계신 것과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 주님은 그를 찾는 영혼들을 결코 실망시키거나 물리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그 아들을 통해서 당신이 주님의 백성에게 신뢰를 받기에 완전한 분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찾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즉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시43:4).

_브루스 F. F. Bruce

제 8권 8호 2026년 2월 22일

vanebenez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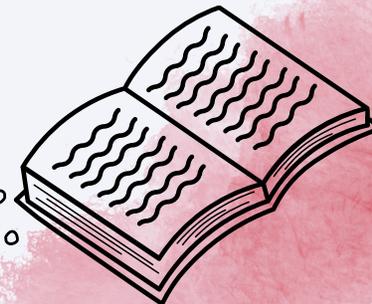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The Lord At Their Head

막가 2:13



3977 Albert St, Burnaby. V5C 2E2



주일예배

*예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Please stand all who are able

경배와 찬양 Praise&Worship 다같이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입례송 Opening We have come to worship the Lord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 서로 불러 이르되
 회 중 :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다같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도신경 Aposties Creed 다같이

사죄의 기도 Prayer of Repentance 인도자

찬송 Hymn 8장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로마서 5장 12-19절(신245)

말씀선포 Sermon 우광현 목사

타락

찬송 Hymn 269장

연보 Offering 전이안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파송의 말씀 Closing Responsive Reading

인도자 :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회 중 :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도자 :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다같이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축도 Benediction 우광현 목사

소그룹나눔

3:40pm-4:50pm

1. 1. Ice Break: "나를 향한 달콤한 유혹, 내 인생의 하이패스?"
 만약 지금 내 인생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과할 수 있는 '합법적인 프리패스 (하이패스) 문'이 딱 하나 나타난다면, 어떤 문을 통과하고 싶나요? (예: 아무리 먹고 누워있어도 근육이 생기고 살이 빠지는 문, 출근하자마자 퇴근 시간이고 월급 10배로 들어오는 문, 하루만에 원어민처럼 영어되는 문, 영주권??)

2.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의 비참함과 나를 살리신 은혜(13-17문)를 묵상할 때, 내 마음이 가장 깊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남 탓과 상황 탓을 멈추고, 죄의 선택이 나였음을 인정한다.
- ② 태어날 때부터 영적 파산자였던 나를 조건 없이 자녀 삼아주심에 감격한다.
- ③ 내장이 끓어지는 아픔(스플랑크나)으로 나를 안아주신 아버지를 신뢰한다.
- ④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세상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았던 삶을 회개한다.
- ⑤ 죽어있던 흙덩어리 같은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살리셨음에 감사한다.
- ⑥ 기타:

3. 에덴의 비극을 십자가로 치료하시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신 하나님께, 오늘 내가 올려드리고 싶은 감사는 무엇입니까?

- ① 패륜아 같은 나를 돌로 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덮여 주신 은혜
- ② 뱀의 의심 섞인 질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숨 쉬게 하심
- ③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좁은 길'로 부르셔서 동행하는 진짜 낭만을 알게 하심
- ④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성실함
- ⑤ 열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보다 나를 살리는 좁은 문을 깨닫게 하신 사랑
- ⑥ 기타:

4. 오늘도 내일도 '좁은 문'을 열고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께, 오늘 내가 맡겨드리고 싶은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 ① 교회에서 받는 은혜와 세상에서의 내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
- ② 내 앞에 놓인 '작은 선악과(성공, 편법, 타협)'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
- ③ 조금 불편하고 피곤해도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문을 매일 기쁘게 여는 결단
- ④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편한 길(넓은 문)을 기웃거리는 내 마음 내려놓기
- ⑤ 고난 중에도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스플랑크나)을 잊지 않는 것
- ⑥ 기타:

5. 오늘 들은 말씀 중 나에게 인상 깊은 내용을 적용하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주간 기도해 주세요.

지난 주 연보

- 주일연보 \$
- 감사연보 \$ 200

온라인연보계좌

offering@vanebenezer.com

이렇게 기도합니다

1. 교회를 지켜주소서
 주의 몸 된 교회로 든든하게 서가며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2. 예배를 지켜주소서
 오직 예수만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밖에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3. 믿음을 지켜 주소서
 연약하지만 그러기에 더욱 주님을 붙들고 맑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4. 가정을 지켜주소서
 매 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복된 은혜의 가정되게 하옵소서
5. 건강을 지켜주소서
 질병과 스트레스, 사고로 부터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을 위로 하옵소서
6. 학교와 직장을 지켜주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칭찬듣는 자들이 되며 성취할때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7. 삶을 지켜주소서
 비전으로 살게 하시고 목적과 기대를 주셔서 작은 일에도 만족하며 베푸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